

함평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우수기관에 선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 감사패 전달받아 총 3억 2천여만 원 모금... 전년비 109% 달성

함평군이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우수 기관에 선정돼 지난 8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추진된 '희망2019 나눔 캠페인'에서 총 3억 2천여만 원을 모금, 전년 대비 10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한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아직 살 만 한 것 같다"며 함평군민과 지역 사회단체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운행 함평군수도 "감사패는 함평군민을 대표해 내가 받은 것일 뿐, 모든 공로는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군민과 기관·사회단체, 기업들에 있다"며 "군도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금된 재원은 의료비 지원, 주택 개보수, 나눔문화 확산 지원 사업 등으로 함평지역 저소득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함평군이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 8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함평군 제공

장성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지원 금액 20만원으로 100%인상

장성군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의 규모를 100% 확대했다.

지원 금액을 종전의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원 연령도 만20세부터 만70세까지 지원하던 규정을 조정해 만75세까지로 확대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부터 지원이 대폭 확대돼 여성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장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여성농업인 김옥자 씨는 "영화감상이나 외식할 때 행복바우처 카드를 요긴하게 썼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며 "올해부터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기에 서둘러 신청하려 했다"고 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군내 주소소를 둔 해당 연령의 여성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군지부를 방문, 2만 원의 자부담금을 내면 20만 원 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타 분야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농업 외 전업직 직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또 발급일로부터 연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도서구입과 영화감상, 음식점, 안경점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희 및 숙박업소,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장흥군-호남대, 통합의학박람회 '맞손'

당사자 간 상생발전 등 다양한 분야 협력키로

장흥군은 지난 8일 호남대학교와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 협약 당사자 간 상생발전 △박람회 행사 관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습 및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전개 △재활인력양성, 노인재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호남대학교는 보건 의료 분야 재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통합 의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중 장흥군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합의학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호남대학교와 장흥군이 관학협력 상생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사람으로 향하는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란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 까지 7일간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박람회는 건강한 먹거리, 다양한 건강 힐링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기존 박람회와는 다른 변화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보름달 품은 담양 밤하늘 '별빛·달빛여행'

15일까지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담양군은 담양의 밤하늘을 만끽하는 야간인문학 명사와 함께하는 '담양 별빛·달빛 여행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별빛·달빛여행은 죽녹원 봉황루에서 인문학 명사가 전해주는 담양 인문학 이야기를 들으며 대나무 숲 산책로를 거닐고, 영산강문화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과 플라타너스 숲 속에서 담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빛과 달빛을 감상하는 특별한 여행을 전한다. 군 관계자는 "플라타너스 숲길에서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과 함께 낭만 가득한 버스킹 음악공연을 관람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행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damyang.go.kr)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30명(1회당) 모집, 참가비는 5천원



담양 별빛·달빛 여행프로그램. /담양군 제공

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녹색관광과 (061-380-31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best1@

영광, 꽃길·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조성

영광군은 관내 주요 시가지 가로변에 도심 속 향기 가득한 꽃길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2019 국토공원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도심권에 계절별 꽃묘인 팬지와 가지나리아 등 5천본과 영광읍 학정리 회전교차로 교통섬 등에 달맞이꽃 3만5천본을 식재했다. 또한 2019 영광e-모빌리티

스포츠 행사 등에 대비해 꽃묘 식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영광읍 관문인 학정로터리에서도 동리 생활체육공원 1킬로미터 구간과 생활체육공원 장미원에 장미 2만3천여 본을 보식했으며 형형색색 아름다운 장미꽃길 이 형성돼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화순, 23개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실시

화순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23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최근 5년 동

안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법인, 300만 원 이상 감면 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9일 상반기 조사 대상 법인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

서를 발송했다.

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면 조사를 위주로 하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법인은 전남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나주 다시면,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초청... 오찬 행사 마련

나주시 다시면은 지난 8일 제47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 150명을 초청, 빛가람동 소재 식당에서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날 다시면 출신으로 빛가람동 소재 우식당(우미가)을 운영하는 이희 씨가 점심과 장소를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고구려대학교에서 차량을 협조했다. 또, 출향향우(故이영백)의 자녀들이 부친을 기리고자 어버이날 선물 및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3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하기도 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효부로 이름난 가흥1리 조경희 씨가 효행상(시장표창)을 수여받았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보호와 사랑으로
행복을 찾아주세요

행복한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도민일보